

“참사 유가족 아픔 함께 나눠요” 전국서 기부 행렬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아픔을 함께 나누기 위한 전국 기부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경북·부산·경기·서울·경남·전북·강원·울산·충남 등 9개 시·도가 총 21억원의 성금을 기탁했다.

▶관련기사 6·12면

7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1일 경북도와 부산시가 가장 먼저 각각 2억원과 1억원을 지정기부처를 통해 기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남도와 함께 다양한 분야에서 영호

남 상생협력 사업을 펼치고 있는 경북도는 김학홍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경북대표단을 꾸려 사고 현장을 찾아 희생자를 조문하고 경북도 재해구호기금으로 마련한 성금을 전달하기로 했다.

이달 1일엔 역시 전남도와 광역상생 협력을 이어가고 있는 경기도의 김동연 지사가 무안공항 분향소를 찾아 사고 희생자를 조문하고 재해구호기금으로 마련한 성금 5억원을 기탁하기로

9개 광역지자체 총 21억원 기탁 의사 전남도에 전달

김영록 지사 “유가족 일상 되찾도록 후속 조치 최선”

했다. 김동연 지사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실의에 빠진 유가족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2일엔 박명균 경남도 행정부지사 단장으로 한 경남도대표단이 무안

공항 분향소를 찾아 2억원을 지정기부처에 맡기기로 했다. 박명균 부지사는 “경남도의 지원이 고통을 겪는 유가족들께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시와 전북도도 각각 5억원

과 2억원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1천200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전달하기도 했다.

3일엔 강원도와 울산시가 각 1억원, 충남도가 2억원을 희사하겠다는 뜻을 전달해왔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사고의 슬픔을 함께 나누고 유가족과 도민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성금 기탁을 결심한 전국 시·도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 위기를 위기로 끝내지 않기 위해 반

상하고 성찰하면서 유가족들이 용기를 잃지 않고 깨끗하게 일상을 되찾도록 사고 수습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전남도는 ▲강원도 강릉 산불 1천만원 ▲경북·강원 산불 2천만원 ▲강원 동해안 산불 1천만원 ▲광주 동구 건물 붕괴사고 500만원 등 타 시·도의 대형 재해 때마다 신속한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한 성금을 지원한 바 있다.

/김재정기자

국내외 호남 향우, 참사 유가족 애도

광주전남시도민회 등 조문...美 6개 도시에 분향소 설치

국내외 호남 향우들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지역사회를 위로하며 나눔과 연대를 실천했다.

7일 전남도에 따르면 광주전남시도민회와 전국호남향우회 등 주요 출향향우 단체가 무안 합동분향소를 찾아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이들은 고향사랑기부금을 약속하기도 했다.

미주 호남향우회는 미국 주요 도시 6곳에 추모 분향소를 설치했다. 뉴욕,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오거스타, 시카고, 휴스턴에 설치된 분향소에는 한인 동포와 지역 주민들이 찾아 애도했다.

캐나다와 독일, 일본, 중국 등 세계

각지 호남향우회도 조화·성명 등을 통해 연대와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서정일 미주한인회총연합회장은 성명을 통해 “270만 미주 한인 동포사회가 한국 국민과 슬픔을 함께하며 사고의 철저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양광용 광주전남시도민회장은 “고향사랑기부제는 단순한 기부를 넘어 고향과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중요한 가교”라며 “힘든 시기를 보내는 고향과 주민들에게 작은 힘이라도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동참했다”고 말했다.

/김재정기자



희생자 극락왕생 염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열흘째인 7일 무안국제공항 사고 현장에서 조계종 스님들이 희생자의 극락왕생을 염원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광주시, 최대 9만원 인상

광주시는 7일 “올해부터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을 최대 9만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까지 연령에 관계없이 1인 월 36만원의 양육보조금을 지급했지만 올해부터 연령별로 차등 지급한다.

7세 미만은 이전과 동일한 월 36만원을 지원하며 7세 이상 13세 미만은 월 4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월 4만원 인상한다.

13세 이상부터 18세 미만은 45만원으로 지난해보다 월 9만원 인상한다.

광주시는 가정위탁아동들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성장과 위탁부모의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 권고안에 맞춰 연령별 차등 확대 지원방안을 모색했다.

취학 이후 양육비용 소요가 많은 7세 이상 아동에 대한 양육보조금 인상을 통해 단가를 현실화하고 위탁아동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가정위탁아동 보호제도는 친부모의 사망이나 부재에 따라 일반 가정에서 일정 기간 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하는 제도다. 현재 광주지역에는 300여명의 가정위탁 아동이 있다.

광주시는 위탁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비 ▲전문아동 보호비 ▲아동용품 구입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영동 여성가족국장은 “아동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변은진기자

이태기 광주시 금융정책협력관 위촉



광주시는 7일 금융정책협력관으로 이태기(금융감독원 2급·사진)씨를 위촉했다.

이 협력관은 앞으로 1년 간 광주시와 금융감독원 간 소통창구 역할을 하게 된다. 금리·자금 운영, 금융기관과 협력사업 등 광주시 경제정책 수립과 재정운영 자문을 맡는다.

광주 출신인 이 협력관은 2002년 금융감독원에 입사해 보험감독국·생명보험검사국을 거쳐 보험리스크관리국장 등을 역임했다.

광주시는 이 협력관이 장기적 경제안정 등에 힘을 보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변은진기자

GGM 파업 가시화...미래차진흥원 노조 “지역경제 타격”

“파업 신중해야...노사상생 위한 대화·협력 자세 필요”

광주글로벌모터스(GGM) 노조의 파업이 가시화되면서 지역 경제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국공공연구노조조합 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지부는 7일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GGM 노조의 정의행위 돌입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모빌리티진흥원지부는 “최근 GGM 노조의 파업 찬반 투표가 찬성으로 가결됨에 따라 지역 경제와 기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며 “파업이라는 중대한 결정은

회사의 성장과 지역 경제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신중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빌리티진흥원지부는 “노사 갈등은 회사의 단기적 어려움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GGM 노조는 회사 설립 초기부터 강조해 온 상생의 가치를 존중하고 갈등이 아닌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모빌리티진흥원지부는 또 “지역 경제와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설립 목

적은 되새기며 상생의 노사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화와 협력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모빌리티진흥원지부는 “GGM은 단순히 기업의 이익을 넘어 광주지역 경제와 시민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책임 있는 기업이 되어야 한다”며 “노사 모두 상생협력의 등 기틀을 통해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비록 파업 찬성으로 가결됐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GGM 노사가 함께 상생의 가치를 실현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모범 기업으로 거듭날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GGM 노조가 지난해 12월30-31일 조합원 225명 전원이 참여한 정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찬성 200명(88.9%), 반대 25명(11.1%)으로 정의행위를 결의했다.

GGM 노조는 조만간 파업 여부와 일정, 세부 방침을 확정할 방침이다.

그동안 GGM 노사는 수차례 교섭을 벌였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GGM 노조는 월 급여 7% (15만9천200원) 인상, 상여금 300%, 효봉제 도입 등을 요구했으나 사측과의 협상 결렬로 파업 초읽기에 들어갔다.

/변은진기자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봉사실천에 앞장서는 사람들

국제로타리는 1905년에 '초아의 봉사'를 모토로 창설된 최초의 봉사단체입니다. 전 세계 로타리 회원들은 높은 윤리적 기준을 실천하고 문해력 증진, 질병 퇴치, 기아 및 빈곤 감소, 안전한 식수 제공, 모자보건, 경제 및 지역사회 개발 등 인도주의 활동을 통해 세계이해와 평화증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다 함께 힘을 모아
지구촌과 지역사회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한 지속력 있는 변화를 실천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국제로타리 3710지구 (광주, 전남서)
2024-25년도 총재
진화 백현옥

국제로타리 3710지구는 광주광역시와 전남 서부권 9개 시·군(화순, 나주, 담양, 장성, 영광, 함평, 무안, 목포, 신안)에 있는 90개 클럽을 관리하는 지구로 3,600명의 로타리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서구 대남대로 448(농성동)
TEL. 062-223-3710
FAX. 062-223-3738
E-mail. ri3710@hanmail.net



3710지구